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사도행전 2:14.36-41	제2독서	베드로1서 2:20-25	복음	요한 10:1-10
--------	------	-----------------	------	---------------	----	------------

◎말씀 <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 (요한10:10)

오늘은 “생명 주일” 이자 “성소 주일” 입니다.
 “생명주일” 이라 함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생명에 생명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주일이요, “성소 주일” 이라 함은 생명에 생명을 더하는 일에 하느님의 일꾼을 더 보태어 달라고 영원하는 주일입니다.

해마다 5월의 첫 주일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죽음의 문화’ 가 지닌 위험성을 깨우치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참된 가치를 되새기는 “생명주일” 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화는 가끔 ‘죽음’ 을 지향합니다. 전쟁을 부추기고, 생명을 경시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자살을 방조하면서 죽음의 세력은 자라납니다. 사실 이러한 죽음의 문화는 인격을 모독하는 작은 행위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작은 행위에서 부터 싹이 틈니다. 인간을 존중하지 않을 때, 죽음은 자라게 되고 인간을 배려하지 않을 때, 죽음은 얼굴을 드러냅니다. 결국 “죽음의 문화” 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지 않을 때 생겨나는 일련의 사회현상이라고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화” 는 생명을 지향하는 “생명의 문화” 와 반대되는 것이며,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배척하게 되는 역성장의 문화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 베드로는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사도 2:40)라고 타이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세대가 바로 죽음의

문화를 부추기는 죄의 세대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세례는 이러한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줍니다. 이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에게서 넘쳐 나오는 은총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며, 죽음을 이기신 새로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제2독서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 왔습니다.” (1베드 2:25) 라는 말씀은 타락의 세대를 벗어나 하느님이 마련하신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더하는 새로운 부활의 삶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보존하고 성장시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느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요한 10:14)하신 예수성심과 닮은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꾼이 없으면 우리의 좋은 삶도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요한 10:10)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독서는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1베드 2:24)라고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 주일” 과 “성소 주일” 을 맞이하여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생명을 더하는 풍성한 생명의 삶(시편 23) 즉, 부활의 삶을 세세대대로 체험하게 해 줄 하느님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 주시기를 오늘 미사 중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일자	전례력	일자	전례력
5월5일(화)	부활 제4주간 화요일	5월8일(금)	부활 제4주간 금요일
5월6일(수)	부활 제4주간 수요일	5월9일(토)	부활 제4주간 토요일
5월일(목)	부활 제4주간 목요일	5월10일(일)	부활 제5주일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부활 시기

부활대축일의 주일부터 성령강림 대축일 까지의 50일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오는 이 50일간을 하나의 '위대한 주일' 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부활대축일을 이렇게 수일간 지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세기의 이레니오, 오리게네스, 테루톨리아노 등은 수일간 계속되는 부활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테루톨리아노는 이 기간을 펜테코스트(나중에 성령강림 대축일의 명칭으로 정착됨)라 불렀습니다. 4-5세기에는 50일간 중에서도 특히 최초의 8일간(부활 팔일)과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50일째의 일요일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세 때에는 승천대축일 전례 때 복음낭독후에 부활초를 끄는 예식이 생겨났는데 이는 예수님이 승천하여 지상에는 안 계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쇄신된 전례는 고대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부활시기 안에 있는 부활 팔일, 예수님 승천 대축일, 성령강림 대축일을 개별적으로 지내는 것을 존중하면서도 50일간의 기간이 전체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기념하는 기간임을 강조합니다.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법칙' 은 이 기간을 "하나의 축일로서 환희 속에서 보낸다. 알렐루야가 특별히 불리어지는 것은 이 기간이다. '(22항)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초는 예수님 승천 대축일에 끄지 말고 성령강림 대축일 때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의 사항으로부터 부활절의 특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절의 50일기는 하나의 통일된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50일간 교회는 성삼일에 거행하였던 예수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의 체험을 심화해 나갑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성서를 봉독하는 데 제1독서로는 사도행전이 복음으로는 요한복음이 주로 낭독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에 의해 시작된 초기공동체의 모습을 전해주고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서 사는 내적 인간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에 알맞은 내용입니다.

둘째. 부활기간은 성령강림 대축일과 함께 종결된다는 점입니다. 성령강림 대축일은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예수님 부활 50일 후에 체험한 성령강림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같은 성령이 현재의 교회에도 똑같은 은총을 보내주고 계심을 경축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사를 포함하여 교회에서 거행하는 전례(성사)는 예수님의 현존에 참여하는 가장 훌륭한 기회라 하겠습니다.

셋째. 부활기간은 기쁨과 환희의 기간이며 특별히 알렐루야의 의미가 잘 전달되는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기쁨' 은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한 인간의 가장 직접적인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의 방문을 맞은 엘리사벳은 태중의 아드님과 함께 기쁨에 넘쳤으며(루카 1.45),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도 평화와 기쁨에 휩싸였습니다.(루카 24.32.40).

또한 초대 공동체의 신자들은 한마음이 되어 기쁨 속에서 매일을 보냈습니다.(사도행전 2.46).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인간이 일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슬픔이나 고통을 없애거나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부활절의 화답송으로 잘 등장하는 시편 104는 하느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찬미하며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당신의 숨을 내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당신께서는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30절)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고생하는 많은 이들이 성령이 내려주시는 용기와 희망으로 굳건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 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조기표의 영혼	전기례.베레나	생	곽화근.요한의 건강회복	곽유경.테레사가족
연	송주우의 영혼	송돈희.요셉	생	김한모.바로로 신부님 김상돈.도미닉 부제님 김귀태.안셀모, 고원석.바로로	윤태옥.안나
연	양베드로, 양안당 한데레사, 윤베드로 정마리아, 김로사의 영혼	윤태옥.안나			
연	임흥덕, 정광석 곽재엽.울리아의 영혼	정미정.루시아	생	주요셉.어머니, 요셉가정 토이 가정	윤태옥.안나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찬미예수님!
본당 신자들에게!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성당의 미사와 모임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사중에
신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본당신부 김한모.바오로.

- 1.주일 대송은 독서와 복음 및 강론을 읽고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쳐주세요.
(평화방송 시청)
- 2.고해성사는 사전에 신부님께 확인후
개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3.성체조배와 십자가의 길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4.구역장님께서서는 신자들과 자주 연락하시고
안부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가주 보건국에서 발표하는 예방지침 및
생활수칙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제사용.사회적 거리유지.주택대피령등)

● 교무금과 주일헌금 납부는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교무금.주일헌금등은 사무실에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95826
Check 발행시: ST. J.H.C.

●교무금

김상범(1-6월) 이의웅.안기창(4-5월)
김승제(3-5월) 안선미(3-4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
엄모니카/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틸리아
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뎃다/이상일.마리아
곽화근.요한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화답송



주님 - 은 나의 목 - 자 아 쉬 울 것 없 어 라

전례봉사	부활 제4주일(5월3일)	부활 제5주일(5월10일)	부활 제6주일(5월17일)	주님승천대축일(5월24일)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봉헌/기도/청소				
헌금위원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 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게스관광</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www.guesstour.com</p>	<p>Suzie Hair World</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p> <p>Payee to: St.J.H.C</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